

# 96년 남북관계 전망

김 남 식(통일문제 연구가)

## 발제 요지

### 1. 한반도 문제를 보는 기본 시각

한반도 문제는 민족의 주체적인 문제인 동시에 국제성을 띠고 있다. 국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주변 강대국 곧,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주변 4강을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4강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4강은 역사적인 시각에서 남북한을 본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시각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은 우방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했지만 지금 그것이 중요한가”, “중국은 옛날에는 공산국가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스탈린체제가 망하고 경제개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이다.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망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본인들은 “침략을 했지만 뭐가 잘못이나. 교육도 해주고 철도도 건설해주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자신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망언을 막기보다 우리가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러시아 대사 구나제가 2년 전에 와서 고종시절에는 러시아와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관파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중국은 한족주의를 내세워 청조시절처럼 한반도가 사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과거에 일본과,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국을 자신의 관할권으로 한다는 가쓰라 태프트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이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을 본다. 주변 4강은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문제를 역사적인 시각을 갖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 2. 국제정세 전망

먼저 미국에서는 냉전체제 해체 이후 두 가지 문제, 곧 무역적자와 적지예산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는 WTO체제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만만하지는 않다. 균형예산을 위해서는 복지예산과 군사비를 절감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의문시되고 있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것이 미국의 역할인데 과거에는 전쟁 억지력을 길러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현재는 국방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위협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외교적 힘에 의해 이를 없애는 예방외교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는 팔레스타인, 시리아와 접촉하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과정과 북미수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전쟁 억지력을 강화할 능력도, 필요도 없고 의사도 없다.

한편 미국의 군사전략이 기존의 유럽 중심 전략에서 아태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동구가 붕괴했고,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통합이 진전되고 있어서 여기는 미국이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기존의 유럽 중심 전략을 아태지역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 지역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유지하면서 현지부담을 늘이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방위비를 전액 부담하고 한국은 1/3을 부담한다는 식이다.

미국은 아펙(APEC)을 조직하여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으나 동남아시아는 이미 일본이 장악하고 있다. 남은 것은 한반도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기 힘들다. 또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미국은 중국중심의 아태지역 재편을 경계하고 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한반도, 특히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이 어디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동북아 질서는 달라진다.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와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북한이 어디로 기울어지는가는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략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에 대해 몇 가지 문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95년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155억불에 이른다. 1주일에 3억불 적자가 나는 것이다. 이것이 소비품 수입으로 인한 적자라면 안 먹고 안 쓰면 되지만, 이것이 아니라 대외의존, 일본경제와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수입품이 주로 시설, 부품, 기본 원료, 기술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의 연장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금지곡이 되었던 것이다. 정신대사건과 관련하여 데모를 하면 제일 걱정이 많은 것이 통상부 직원들이다. 우리 경제가 큰일 난다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서는 못 고친다. 구조적인 문제이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누가 1주일에 3억불을 포기하려 하겠는가?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자기의 기득권만 보장된다면 지지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일본 당국자들이 언급한 적은 없다. 한국정부가 북한에 “일본쌀 보내지마” 하면 ‘예’ 하게 되어 있다.

제자들의 초청으로 일본에 간 적이 있다. 제자들이 술을 낸다고 해서 술집에 가보았는데 접대를 하는 아가씨가 태국인이었다. 술집에서 술 따르는 여자들 가운데 일본인은 없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태국, 필리핀, 한국에서 온 아가씨들이다. 한국에서 온 아가씨들이 지금 10만이 넘는다. 이게 현대판 정신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신제주에 7600명의 아가씨들이 등록되어 있다.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술 먹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제주도에 와서 놀고 간다.

일본은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퍼져 통일을 원치 않는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이다. 해안선을 따라 경제특구가 건설되어 있고 자본주의경영 방식들이 도입되어 있다. 내륙지방도 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작년 6월 말 현재 중국의 공산당원이 5,400만명이고 공산당의 지도가 관철되고 있다. 물론 스탈린체제와 같은 사회주의체제는 아니다.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라고 하는데 느슨한 사회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목표는 50년 내에 세계 중심국가가 되는 것이다. 중국사람들은 명나라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청나라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들은 지하자원이나 인구로 보아 충분한 잠재력이 있으니 50년만 노력하자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중국중심의 과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중화경제권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주변국을 인입하려 하고 있다. 중국에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이 들어가면 부품공장도 따라 간다. 우리의 외국자본 유치방식과는 다르다. 시설과 기술이 중국 것이 된다. 또 합작회사의 사장은 투자자가 맡지만 부사장은 공장 내 공산

당 당위원회의 서기가 맡는다. 중국에서는 노동조합은 공산당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고 노동자들이 당을 신뢰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은 한족주의가 강하다는 사실이다. 12억 인구 가운데 92%가 한족이다. 나머지 8%가 소수민족이다. 과거의 만주족도 한족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족도 중국말을 더 잘한다. 어떻게 보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사람이다. 중국은 한족주의를 강하게 추구하여 소수민족을 한족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족이 세계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기원전 5011년의 단군릉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이를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단군-고구려-고려-김일성으로 연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러한 한족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제 단군이 한반도에서 조선을 세운 뒤 힘이 넘쳐 요동반도에 진출한 것으로 역사가 서술된다. 이에 대해 중국사람들은 크게 반발한다. 중국사람들은 중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한반도 역사의 기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역사는 남방민족이 성했다가 다음에는 북방민족이 성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현재 중국의 지도층은 상해지역 사람들이 중심이고 개발도 남쪽 중심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만주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우선 만주사람들이 불만이 많다. 또 만주는 석탄, 철강, 유전 등 지하자원이 많다. 아마 이것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개발하는 마지막 지하자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지하자원을 운송할 항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나진·선봉지구 개발은 중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엔 개발기구(UNDP)보고에 따르면 이 지역이 홍콩보다 유리한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두만강개발계획안은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고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중국은 공동개발을 위해 토지를 내놓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북한은 대신에 청진 동향을 50년 동안 중국에 임대해 주었다. 홍콩을 내년에 차지하게 되고 대련항도 완공이 되어 중국이 나진·선봉만 가지게 되면 무서울 게 없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수교를 서둘러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졌다. 경제교류도 끊겼다. 근래에는 북한과의 관계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총선에서 공산당이 1당이 되었고 의회의 의장도 공산당이 차지했다. 엘리트와 의회 사이에는 사사건건 마찰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동북아질서 재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자간 안보회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강대국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분단고착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단은 고착화된다. 내 증조 할아버지가 대원군보다 10살 아래이다. 그 때 강화도사건, 샴인호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개항하려고 들어온 나라들은 다 식민주의자들이다. 그 이후 갑신정변, 동학혁명, 갑오개혁, 청일전쟁, 러일전쟁, 영일동맹, 가쓰라태프트협약, 을사5조약 등 굵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일제가 물러간 후 분단이 된 것이다.

식민지가 아니었던들 미소가 들어올 이유가 없고 분단이 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을 역사적으로 단절해서 볼 수는 없다. 분단은 개항 이후 130년 역사의 귀결이다. 그 130년 동안 우리 민족은 민족의 자주화를 위해 투쟁해 왔다. 위정척사론, 3·1 운동, 신간회운동 등이 다 이런 것이다. 시기에 따라 투쟁의 형태는 달랐지만 그 내용은 민족의 자주화를 위한 것이었다. 130년 역사는 긴 것 같지만 세대로 치면 4대, 5대 정도이다. 관련 주변 강대국들은 이때부터 한반도문제에 관여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분단을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 3. 남북관계 전망

현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100만Kw짜리 원자료를 제공하기로 경수로공급협정이 이미 체결되었다. 북한의 핵발전소 동결을 대신하여 기름을 50만톤 주기로 되어 있다. 머지 않아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북미간에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국교정상화를 전제로 한다.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간 협정을 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락사무소는 빠른 시일 안에 대사급으로 승격시키기로 북미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북미간의 관계는 개선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런 환경변화를 의미한다. 미군 유해송환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도 분위기 개선을 위한 것이다. 미국은 클린턴 한국 방문을 카드로 이용하여 한국에 남북관계 개선 압력을 넣고 있다.

여기에서 휴전협정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 현재 휴전체제는 붕괴된 상태이다. 북한이 휴전체제를 관리하는 정전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철수했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폴란드도 나갔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의 헬리콥터가 북한지역에 추락했을 때 정전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해결해야 하지만 미 의회 의원 리처드슨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해결했다. 클린턴이 휴전체제를 무시하고 정치협상을

통해 유해송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리고 유엔사령관이 사과를 했지만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북미간 핵협상 때 미국 대표였던 토마스 하버드가 북한에 가서 생존한 콜중위를 데려왔다. 내가 미국 국무성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았더니 현실적 상황에서 휴전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은 동시이행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곧 유해송환문제, 경수로 설치 등과 더불어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이를 그럴 듯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처럼 보이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추세는 평화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수로문제, 평화협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연적이다. 정상들이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 정상회담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데, 김일성 주석 사후 조문문제, 쌀제공문제 등에서 남한정부가 경직된 태도를 보인 것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저류에는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부문운동도 이런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질의·응답

언론에서 수해로 인해 북한 내부가 심각한 상태, 위기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작년 북한의 수해로 신의주와 황해북도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식량피해가 몇 십만톤이라고 하는데 나는 식량피해보다 철도와 토양 손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철도만 하더라도 10개 정도가 손실되었다고 하고 토양을 복구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예비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자연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비축미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금년이나 내년 농사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식량을 받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소련과 관계가 악화되어 북한에 기름 공급이 중단되고 비행기 훈련도 줄어든 적이 있다. 하지만 중동에서 기름을 공급받아 기름부족을 해결했다. 한 국가를 운영하면서 완전한 예비가 없을 수는 없다.

과거에도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나름의 내구력을 가지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이 꼭 한반도 통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북미수교는 과거에 미국이 추구했던 전략인 교차승인구도를 완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민족 자주정권이 들어서지 않고서는 화해·협력을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4강들이 분단고착화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 방식도 중요한데 현재 북한의 집단주의체제와 남한의 개인주의체제가 하나 되는 통일은 생각할 수 없다. 동서독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다. 통일은 되었지만 사회는 분열되어 있다. 체제통합은 가능하지 않다. 체제와 이념은 그대로 놓고 민족화합을 해야 한다. 양 체제가 선 것은 분단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체제를 그대로 놓고 민족적 공통성에 입각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특구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경제특구와 국내 경제체제를 완전히 분리시켜 운영하고 중국의 경우는 경제특구를 체제 내에서 소화하는 방식인데 이런 차이가 나는 배경은?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경제규모가 커서 경제특구가 중국의 사회주의체제를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 지도 아래 충분히 자본주의경제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나진·선봉을 자유무역지대로 내놓았지만 지역도 좁고 인구도 작다. 중국처럼 하다가는 체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경제특구가 체제 위협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조마조마 했다고 한다.